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정세랑 - 청기와 주유소 씨름 기담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더운날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짧은 소설을 찾다가 발견. 기담이라는 점이 흥미로웠고, 청기와 주유소라는 추억의 장소와 연관된 이야기인 점도 읽게 된 이유임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읽어주세요.
"그래서 저더러 씨름을 하라고요? 도깨비랑?" 화면은 맨홀을 비추고 있었다. 무거운 맨홀 뚜껑이 완전히 옆으로 치워져 열려 있었다. 왔다, 왔구나. 나는 살바 두 개를 감아쥐고 정신없이 건물 밖으로 나갔다. 확인해야 했다. 맨홀에서 나온 게 무엇인지. 공포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꼭 도망치지 않고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게 뭔지 확인하려고 들어서 보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곤 하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확인이 하고 싶다.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뒷머리에 차가운 손가락이 들어 있는 느낌이 날 걸 알기에 말이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 신경질이 솟구쳤다. 그냥 신경질이 아니었다. 이십몇 년 어치의 신경질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신경질을 내 본 적이 없었던 거다. 나의 무겁고 둥근 몸, 그런 몸을 가지고 신경질을 내면 모두 꼴사납다 여겼으므로, 똥똥하고 둔한 아이가 신경질을 내면, 부모가 키우지 않는 아이가 신경질을 내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으므로... 내가 먼저 구기고 모른 척했던 신경질이었다. 화를 낸 적은 있어도 신경질을 낸 적은 없었다. 약속한 50년이 8년 남았다. 문제는 절박하고 절박한 씨름 선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다. 그때의 나처럼 걸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안쪽으로는 살아가는 일의 비참함에 이를 악문 이가 어딘가에 아직은 무른 살로 걷고 있을 텐데. 스스로의 단단함을 발견하지 못한 이가.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머지 않은 날, 만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든다.
책이 좋았던 이유와 감상에 대해 말해주세요.
20년치의 신경질,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 한 번에 터지게 되는 트리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가 오랜 기간 흘려보낸 것들이 임계점을 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순간. 여름이면 약간 긴장하는 수준의 기담이나 미스터리 소설이 읽고 싶을 때가 있는데, 도깨비 씨름을 주제로 한, 딱 적절한 기이함이 있는 소설이었다. 책에 대한 리뷰를 찾아보다가 '화'와 '신경질'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다. 지고 있던 내기 씨름에서 비로소 도깨비를 이기게 되는 '신경질'에 대한 글이었는데, 사전에서는 '신경이 너무 예민하거나 섬약하여 사소한 일에도 자극되어 곧잘 흥분하는 성질'이라고 한다. 청소년기 내내 속에 있는 예민함을 표현하지 못하던 내가 전환점을 맞는 계기, 신경질에 대한 해석도 신선했다.